

광주 도심 속 환경축제... “우리 힘으로 녹색 지구를”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

시청 앞 도로서 전시·퍼포먼스
친환경 에너지·자원 순환 체험
“일상 속 작은 선택이 큰 변화”
쉴시장 “대자보 도시로 발돋움”

제55회 ‘지구의 날’을 앞둔 지난 주말, 광주 도심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환경축제가 펼쳐졌다. 시민들은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과 녹색 사회로의 전환에 한 뜻을 모았다.

지구의 날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차 없는 거리’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가 주관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우리 힘으로 GREEN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인식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구를 지켜나가는 취지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본 행사에서는 지구의 날 경과보고, 대자보 도시 시민실천단 위촉장 수여, 슬로건 시민공모 시상,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지역 단체들은 ‘차 없는 거리’ 일대에 △에너지 △자연환경 △녹색 건강 △자원 순환 △녹색 교통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 35개의 전시 및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제55주년 지구의 날 행사가 지난 19일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중고 물품 교환시장을 열고 있다. 김양배 기자

활동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용 캠페인,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장터와 식물 나눔, 건강 먹거리를 소개하는 부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오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홍보교육팀장은 “원전은 우리에게 당장의 편의는 제공하지만, 방사능 유출과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부스 활동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참

여했다.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인숙 소비자기후행동 호남지부 대표는 “매년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왔는데,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의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은 한 번 배출되면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축적돼 지구에 악순환을 초래한다. 사회 전체의 동참과 관련 법안 통과 등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

조했다.

이날 광주 아동의회 의원들은 윗놀이, 보드게임, 퀴즈 등 놀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해 눈길을 끌었다.

고겸(화정초 5년)·방형서(중흥초 6년) 의원은 “기후위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는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며 “일상 속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축제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정(42)씨는 “자녀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해주기 위해 함께 체험하러 왔는데, 행사 규모도 크고 교육적인 내용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스스로도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실천을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문혁준(14)군도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현실 속에서 인류의 편의를 위해 지구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1년에 하루뿐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체험 부스 외에도 시청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 120명이 참가한 ‘지구의 날’ 그림 대회가 열렸고, 광주천변에서는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자전거 대행진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전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라며 “시민들의 공감, 대중교통 이용 실천과 함께 광주시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대자보 도시로 힘차게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시민과 불자 등이 지난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2025년 빛고을관동회’에서 연등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소운 광주불교연합회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마음에 자비를”... 광주 밤거리 수놓은 ‘빛고을 관동회’

석가탄신일 맞아 민주광장 일대서
지역 사찰 승려 등 1500여명 참석
“자비와 화합의 빛, 사회로 퍼지길”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열흘여 앞둔 지난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는 봄비 속 ‘빛고을 관동회’가 열렸다. 시민과 불자들은 도심에 수놓은 연등의 물결을 바라보며 가족과 이웃의 안녕, 세상의 평화를 기원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사)빛고을나눔나눔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소운 광주불교연합회장, 백양사·화엄사·송광사·대흥사 등 광주·전남 주요 사

찰 승려, 정광중·고등학교 학생, 시민 등 1500여 명이 함께했다.

관동회는 각 사찰과 어린이집 율동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전통 불교 음악은 물론 최신 유행가에 맞춘 율동까지 함께 즐겼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합’한 분위기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어 관동법회와 연등행진, 대동한마당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관동법회에서는 범종 5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인사말, 채화 의식과 점등선언이 엄숙하게 봉행됐다. 행사 내내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시민들은 우비로 몸을 감싸고 자리를 굳게 지켰다.

연등행진은 5·18민주광장을 출발해 금남공원과 광주천변, 웨딩의 거리를 지나 다

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2km 구간에서 펼쳐졌다. 다채로운 연등을 손에 든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자비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광주의 밤거리를 환히 밝혔다.

소운 광주불교연합회장은 “빛고을관동회는 부처님의 오심을 찬탄하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세상에 밝히기 위한 축제”라며 “광주가 자비와 화합의 도시로 거듭나고, 그 빛이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로 퍼져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예년에 비해 일찍 밝혀진 자비의 등불 덕분에 새 봄의 밤하늘이 희망으로 가득하다”며 “이 봉축담을 통해,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여수 서경호 침몰 70일만에 시신 1구 추가 인양

선체서 내국인 추정 시신 발견해
실종자 3명 남아...27일까지 수색

여수 인근 해역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했던 제22서경호 실종자 한 명이 사고 발생 70일만에 추가 수습됐다.

20일 전남도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 동쪽 20해리(37km) 수심 83m 해저에 침몰한 제22서경호 선체 조타실 정밀수색 결과 이날 오전 9시5분께 시신 1구가 수습됐다.

이날 수습된 시신은 실종됐던 한국인 선원으로 추정되며, 여수의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은 뒤 가족들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제22서경호는 앞서 지난 2월9일 오전 1시41분께 여수 백도 동쪽 약 10해리 해상에서 침몰해 승선원 14명 중 4명이 구

조됐고, 5명이 숨졌으며,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6일 외국인 선원 시신 1구가 인양된 데 이어 이날 추가 인양되면서 현재 남은 실종선원은 3명이다.

전남도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을 위해 수중공사 전문업체와 계약했으며, 업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당국은 외국인 생존 선원 증언 등에 따라 최소 1명 이상의 실종자가 선내에 추가로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업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수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안개 등 좋지 못한 기상 상황과 수중 장애물 등 변수가 많아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며 “남은 실종자들도 조속히 수습해 가족들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주·전남지역 당분간 일교차 커... 내일 비 소식도

당분간 광주·전남지역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큰 일교차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당부된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최저기온은 10~15도,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보다 3~4도가량 높은 기온과 함께 큰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소폭 떨어지면서 비가 이어져 총 20~6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

서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23일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2~3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